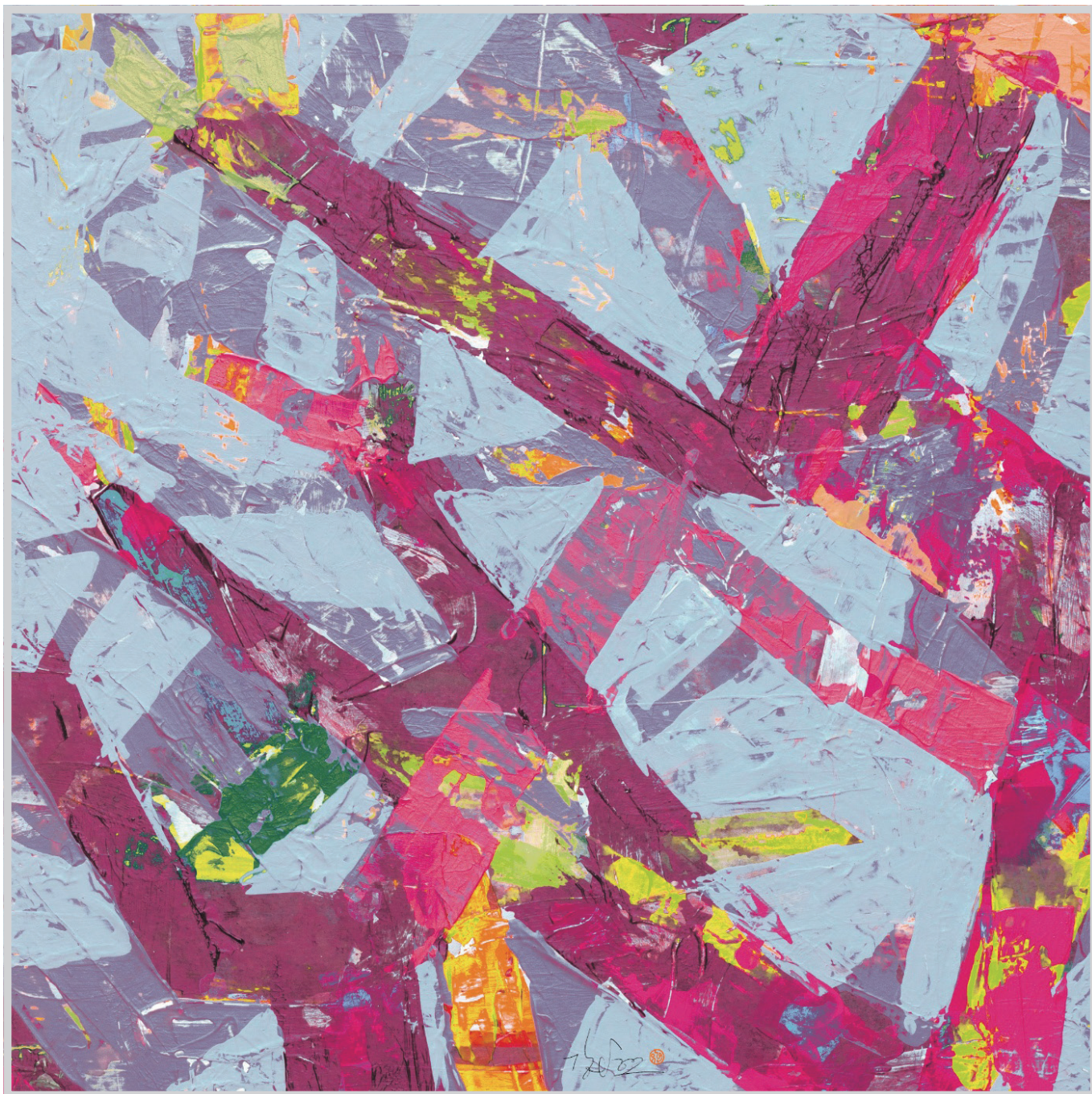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강우현 작

이슈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이슈2 서울인쇄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대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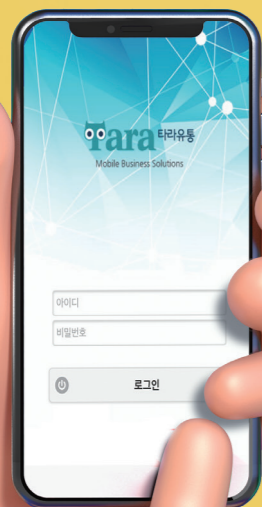
인쇄와 나 문화협회, 연합회, 조합 모두 인쇄인의 것입니다 - 이충원 前 연합회장

02

2024 | Vol.435



<p>찾은 주문 오류 내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데?</p>	→	<p>언제, 어디서나, 주문 및 취소가능 모바일, PC 접속하여 24시간 주문 가능</p>
<p>늦은 재고 확인 재고조회 요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p>	→	<p>제지사 재고 실시간 확인 타라유통 재고 +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재고 실시간확인 / 추후 흥원제지 연동 예정</p>
<p>깜깜이 배송 종이가 출발은 했나? 도착은 언제??</p>	→	<p>실시간 배송확인 배송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자사 전차량 GPS 부착)</p>



모바일 주문 시스템
차별화 선언
내 손안에 종이세상
T-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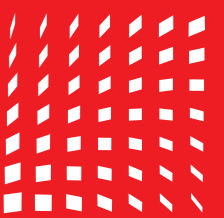
※T-verse는 타라유통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바일 주문 플랫폼입니다.

Tara 타라유통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9층
b2b.tarapaper.com Tel. 02-846-6001



we create
the future



drupa

글로벌 No.1
인쇄 전시회



티켓샵 바로가기
www.drupa.com/ticketshop



think digital – be sustainable

세계 최고의 인쇄 기술 전시회인 'drupa 2024'에 전 세계 인쇄 업계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글로벌 혁신의 핵심 동력인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화라는 두 가지 메가트렌드가 집중 조명됩니다. 혁신이 업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 인쇄 전문가들과의 지식 교환, 네트워킹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drupa 2024 - we create the future

2024년 5월 28일 - 6월 7일
독일 뒤셀도르프

www.drupa.com #drupa2024

[YouTube](#) [X](#) [Facebook](#) [LinkedIn](#) drupa.com/blog

한국대표부 라인메세
0478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현대테라스타워 W동 801호
Tel. 02-798-4343 _ Fax 02-798-4383
info@messe.co.kr

www.messe.co.kr



Messe
Düsseldorf

Kprint 2024

2024
8.21 수
~ 24 토

KINTEX
제2전시장 7,8홀



Since 1978

KIPES

27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Machinery and Equipment Show
제27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label

Korea Label Show
한국레이블전시회

Kpack

Korea Packaging Show
한국패키징전시회

Kdigital print

Korea Digital Print & Solution Show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textile

Korea Textile Show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sign&ad

Korea Sign & AD Show
한국사인·광고전시회

주최

한국이앤엑스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www.kprint.kr



참가신청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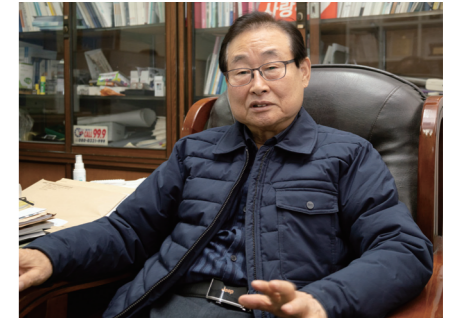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kprint@kprint.kr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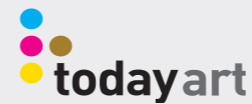


09



14

발행일	2024년 2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윤중
편집위원장	서동숙
편집위원	강혜성, 류윤현, 목영만, 채연화
실무	사업홍보팀(오혜경, 남영복) ☎ 02-333-8631(내선 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편집	카오스넷근아 / ☎ 02-2278-1577
인쇄	(주)투데이아트 / ☎ 02-2265-6119



※ 인쇄제널의 인쇄 및 용지 제공은
(주)투데이아트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강우현 작 One Source Multi-use



설날의 기쁨을 머금은 매화꽃이 행운을 노래합니다.
The Plum blossom, imbued with joy of lunar New
Year, sings of good fortune.

Contents

2024 | Vol.435 **02**

- 06** 이슈1 세운재정비축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 09** 이슈2 서울인쇄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대회 참석
- 10** 인쇄와 나 문화협회, 연합회, 조합 모두 인쇄인의 것입니다 - 이충원 前 연합회장
- 14** 포커스 서울시가 선정한 인쇄분야 우수숙련 기술인 3인
- 16** 업계소식
 - 인쇄 4단체장, 신년하례식 개최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개최
 - 서울인쇄조합, 간사장·운영위원회·사업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FSC 인증 설명회 개최
 -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업실 활용 안내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홍보물 공정한 입찰 발주 요청
 - 다양한 가족 이미지 무료 배포
 - 조합원사 알림
- 20** 알림마당 중소기업 ESG 공급망 대응 온라인 무료교육 제공
- 21** 편업 2024년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안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인쇄 집적지 조성 및 지원시설 건립 요구



공청회 전경. 인쇄업계는 이번 공청회에 100여 명이 참석, 공청회 내내 침묵 피켓시위를 진행해 인쇄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재정착을 원하는 인쇄업계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장치산업특성상 임시컨테이너 상가 입주는 불가능...”

모종근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중구 인쇄스마트앵커 원래 취지대로 건립,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단지 조성 등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전준호 책자인쇄부회 간사장



“인쇄는 2017년 특정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이 없는 점과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유감...”

박준선 박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가 지난 1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3시간여에 걸쳐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인쇄인 100여 명을 포함한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 대표의 의견을 듣고 방청객들의 질문에 관계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인쇄업체 공공 임대시설 221호에 불과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백운수

미래E&D 대표는 세입자 대책 부분으로 인쇄 등 기존 도심산업 연착륙 및 재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 임대시설을 850호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며 인쇄부문은 두 곳에 인쇄전문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임대상이 조성계획은 1단계 기수립 629호(공구상가 시설)를 포함한 총 850호로 인쇄업체를 위한 신규 시설계획은 221호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특히 세운지구 6구역에는 1,429개(서울시 자료)의 인쇄업체가 생업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고, 인쇄업은 도심에 적합한 제조 산업이므로 재개발 이후에도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인 인쇄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임대 사업장이 충분히 공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운지구 재개발로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1,429개 인쇄 소공인들 중 재정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800호 이상의 공공임대 사업장을 공급해주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쇄산업은 집적지 수요 및 지원산업으로 반드시 재정착해야

전문가 의견 시간에서는 주재욱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 박사가 세운지구에 적합한 신산업으로 영상산업을 추천하면서 “인쇄산업 역시 영상산업과 마찬가지로 집적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정착, 발전해 왔으며 도심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므로 반드시 중구에서 다른 산업들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 의견으로도 인현동에서 직접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종원 대표가 나와 “인쇄업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건물에 디자인, 기획, 인쇄, 재단, 제책 등 모든 공정 단계가 집중화되어서 각 이동시간을 절약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인쇄스마트앵커 원래 취지대로 건립해야

방청객 의견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이자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인 박은선 박사는 “중구 지역 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많은 기술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데는 전 세계에 없으며 이미 인쇄는 2017년 특정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이 없는 점과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개발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건설한 기술자들과 일자리를 3천여 넘게 없애면서까지 만든 녹지생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균형있는 사회적 경제와

2024년도 제62회 정기총회 및 인쇄인 생존권 수호 행진

서울인쇄조합의 <2024년도 제62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인쇄인 생존권 수호대책을 논의하고 총회가 끝난 후 서울시청 앞까지 시가행진을 통해 인쇄인들의 단합된 의견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기총회 • 일시: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엠베서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결기대회 • 일시: 2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중구청 앞 집결 ->서울시청까지 행진



공청회 현장 동영상 바로 보기

인쇄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있는 인쇄인들

평등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도심을 만들지에 대한 기로점에서 서울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 도시개발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인쇄조합의 책자인쇄부회를 맡고 있는 전준호 간사장도 “충무로는 조선시대 주자소터가 있던 곳으로 120년 역사를 통해 모든 상권을 인쇄업계가 만들어온 공로를 인정해 메이커스파크(지식산업센터)로 인쇄업의 근간을 만들어주고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에 인쇄스마트엔지니어링을 건립해 주기로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고용인원만 3만명, 그리고 10만명 가량이 인쇄 관련 업종에 있는 이 지역 6천여 인쇄사는 아무 대책 없이 연쇄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며 “중구 인쇄스마트엔지니어링을 원래 취지대로 건립해야 하며 영세 사업자를 위한 先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단지 조성 등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종근 상임인쇄부회 간사장 역시 “계획안에 발표한 공공임대상가 공급안으로는 재정착을 원하는 인쇄업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장치산업특성상 임시컨테이너 상가 입주하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 향후 계획에 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안병석 중구 도시정비과장은 답변에서 “먼저 메이커스파크와 관련해 중구청 민선 7기 때 메이커스파크 진행 계획이었으나 민선 8기 때 정책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6천억 내지 1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전면 백지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따라서 스마트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도 메이커스파크에 300여 개의 인쇄업체가 들어서면 이를 지원하려던 배후 시설이 스마트엔지니어링이었으므로 메이커스파크 백지화로 스마트엔지니어링 건설은 무산되는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비 촉진계획에는 인쇄산업, 그리고 공공상가 계획을 세 군데 정도 거점을 마련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인쇄업계의 요구대로 집약화 모여서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인쇄업계가 요구하는 한군데 모여서 크게 같이 있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인쇄조합, 공청회 의견서 제출

서울인쇄조합은 공청회 이후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의 확충방안으로 세운지구 공원과 녹지 조성 시 신성장기와 진양상가, 호텔 P1 지하 공간을 활용,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장 지원 및 중구 소재 인쇄업체에 공공임대를 해줄 것과 인쇄 스마트엔지니어링과 서울메이커스파크 건립 등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먼저 지하 공간 활용 건의 경우에는 소음 및 도시환경 개선과 프랑스와 같은 도심 근접산업의 연속성, 확장성, 협업 지속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인쇄스마트엔지니어링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 구역 개발 시 그곳 인쇄업체들을 철거로 중구청에 기부채납한 부지이고 울지로, 충무로 일대 집적지의 특성과 도심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이므로 수익성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건립되어야 한다. 서울메이커스파크(지식산업센터) 역시 120년 전통의 인쇄문화산업의 최대집적지인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쇄특정개발진흥사업으로 건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K-Culture의 근간을 이끄러가는 인쇄문화업계의 현실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쇄업계의 미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쇄업 220여 호 배정, 추가 설치 검토

김윤중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운지구공사 착공 전 인쇄소공인 이주단지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난 1월 29일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먼저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일부부지에 공공임대상가를 건립할 계획이며 인쇄업체도 이주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총 공급량 847호 중 인쇄업 대상 220여 호 배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사업 시행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면 추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인쇄조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대회 참석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하라!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및 임원 함께 참석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가 지난 1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3천5백여 명이 국회에 결집해 업계 현장 애로를 성토했던 이날 규탄대회에는 인쇄업계를 대표해 서울인쇄조합에서는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해 책자인쇄부회 전준호 간사장과 서동열·김찬희 업무간사가, 일반인쇄부회에서는 이태영 간사장과 김민호 충무 간사가, 상임인쇄부회에서는 모종근 간사장과 이원석 업무간사가 참가했다. 윤석철 이사과 안영주 감사도 이날 함께 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박래수 회장과 김장경 전무이사가 참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결국 무산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 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



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이 법 적용을 유예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뒤 개청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에 밀려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법 적용 대상인지 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80% 이상이 이에 대한 준비를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간곡히 호소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될 것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문화협회, 연합회, 조합 모두 인쇄인의 것입니다” 이충원 前 연합회장

인쇄업계는 물론 국내 최초 협동화 사업으로 18개 인쇄업체가 모여 서울제일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이하 제일조합)을 설립하고 함께 협업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 서울제일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이자 現 이사장이기도 한 이충원 선문사 대표.

22대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조합) 이사장 및 20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인쇄업계를 화합으로 이끌어냈던 그를 통해 우리 인쇄업계의 지나온 역사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쇄와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문사에 입사한 것이 인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공직생활을 마치고 삼촌과 친구셨던 선문사 회장님의 영업을 도와드리기 위해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여러 사정으로 사업을 안하신다고 해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1974년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처음 업계에 들어와서인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왜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방향 등을 관심 있게 보면서 참고 서적도 읽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조합에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인쇄업계 분위기는 어땠나요?

70년대 초는 시설이 많이 부족했고 2색기도 별로 없어서 자동 기계만 가져도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쇄물 가격이 좋았고 일감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90년대 초에 받던 가격의 반도 못 미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거와 달리 자동화, 다색화로 이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자재비, 인건비 등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도저히 타산을 못 맞추기 때문에 모두 문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8시간 일해서 월급 주고 먹고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이 안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화

밖에 없습니다. 자기 개성에 맞게 특화시켜서 시설을 구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지향한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경쟁이 너무 치열해 쉽지가 않습니다. 덤핑하지 말고 가격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협동이고 단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쇄업계 몸담고 계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이곳 제일조합을 80년대 후반부터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조합 이보혁 이사장 재임 시 아파트형 공장인쇄단지 만드는 두 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어 김종혁 씨가 이사장이 되면서 본격 추진했는데 을지로 환경이 좁고 열악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인쇄단지를 만드는 사업은 이춘화씨가, 아파트형 공장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 구상을 하던 차에 마침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이 닿아 50억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18명으로 조합을 구성, 그 자금으로 이 땅을 사고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들한테는 100평씩 분양하고 조합 운영을 위해 지분을 별도로 남겼습니다. 대신 관리비를 저렴하게 받고 수도는 거의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기도 한전 사장과 직접 협상을 해서 2천kw를 거의 무료로 끌어왔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공사 역시 건물 진입 공사비만 부담했습니다. 허가도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30년 전 건축한 제일조합의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쇄사 환경에 잘 맞게 지은 것 같습니다.

추진 당시 수시로 조합원 회동을 했어요. 건설업체 선정부터 설계사까지 조합원 추천을 받았는데 정말 일을 하려고 하니가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4색기, 5색기가 2, 3층에 올라간 데가 없었는데 우리는 4층까지 지어야 하고 3층까지



이충원 회장(1941년생)

- 현 선문사 대표
- 서울제일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및 현 이사장
-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2004.2~2007.2)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2008.2~2012.2)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기록하고 지켜온 인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충원 회장

라도 기계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과 설계사가 함께 열흘 동안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의 인쇄공장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5~7층에도 4색, 5색기가 있고 종이까지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철근을 어떻게 써야 하고 내진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걸 바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층고를 4m 80cm로 높게 해 사무실이 필요하면 단층을 다락으로 만들어 2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도 폭도 물류 보관과 지게차가 지나갈 수 있게 구상했고, 트럭도 갖다 대면 바로 현관 복도에서 이송이 가능하도록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벌써 30년 된 다 지난 얘기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잘된 건물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네가 해라 던져놓고 나중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설계하기 전에 하나하나 짚어서 요점과 생각을 주입하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공 사례 1호이자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재임 시 가장 보람을 느끼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인쇄센터를 최대한 활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인쇄물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시찰단을 끌고 각국을 돌아다녔습

니다. 미국도 갔고 동남아도 갔고 유럽도 갔습니다.

애착을 가졌던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6년마다 한 번씩 교과서 개편을 하는데 그 시기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곳 한인회 회장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카자흐스탄 출판협회 회장도 다리를 놔줘서 보진재, 타라 등 큰 업체 몇 군데하고 연합회장, 문화협회장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인터뷰도 하고 도서전시회에 출품해 수상도 하고 그 나라 공보처 장관, 홍보처장과도 접견하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성공은 못 했지만, 교류의 물꼬를 만들었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면담하고 한국 대사가 또 해방대 후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교과서 수주 생각으로 카자흐스탄은 두 번이나 갔는데 결국 중국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중국은 값도 싸고 물류비용도 저렴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용지값도 문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소련 연방 인쇄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다 인쇄했는데 당시 공장 직원이 3천 명이었습니다. 다만 기계도 낡았고 달리 버리를 직접 사람이 하고 뒤에서 사람이 직접 추스르는 등 낙후되어 있어 그걸 보고 진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



시찰단을 이끌고 카자흐스탄 국제도서전 참가했을 때 (2005.6)

바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코트라 부사장 출신으로 정년퇴직을 한 분을 인쇄센터 고문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코트라 해외 지사하고 연결을 잘해주셨습니다. 캐나다 갈 때도 미국 갈 때도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해서 현지 바이어를 다 불러 모아줬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해외 가면 누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공고 인쇄과 학생들 데리고 해마다 해외연수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지원은 조합에서 하고 미쓰비시에서 찬조했는데 그 때문에 당시 서울공고 인쇄과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인쇄대상을 처음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서울공고 1회 졸업생 출신인 이재환 대표가 내서 한번 해보자고 해 개최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큰돈 안 들고, 우리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한 일거든요. 당시 이를 더 키워 대한민국 인쇄대전까지 하자고 서울시하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하고 서울시에서 충실하게 하자 해서 잘 이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자랑할 일은 인쇄 관련 3단체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화합을 다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체수의계약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인쇄조합은 매달 1천만원, 연합회는 매달 200만원씩 특별회비 형태로 문화협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홍우동 문화협회장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오세익 문화협회 전무를 실무자로 시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업계에 꼭 필요하고 앞으로 살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쇄문화진흥법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나라당 쪽을 담당하고 민주당은 김재윤 국회의원을 앞



제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당시 인쇄홍보대사인 김미희씨와 함께 (2006.9)

세워 국회의원 39명 공동 발의해 추진했습니다. 공청회 할 때도 1,400여 명이 참석,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꽉 채우고 복도까지 다 들어섰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생긴 이래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이법을 그걸 활용했으면 하는데 제정 이후로 현상 유지할 뿐이라 안타깝습니다.

이밖에도 국제도서전 참석을 통한 수출확대, 업계 과당경쟁 중재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는 단체가 힘이 있었고 조합이사장 하면서 다른 사람 일 일체 손 안 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단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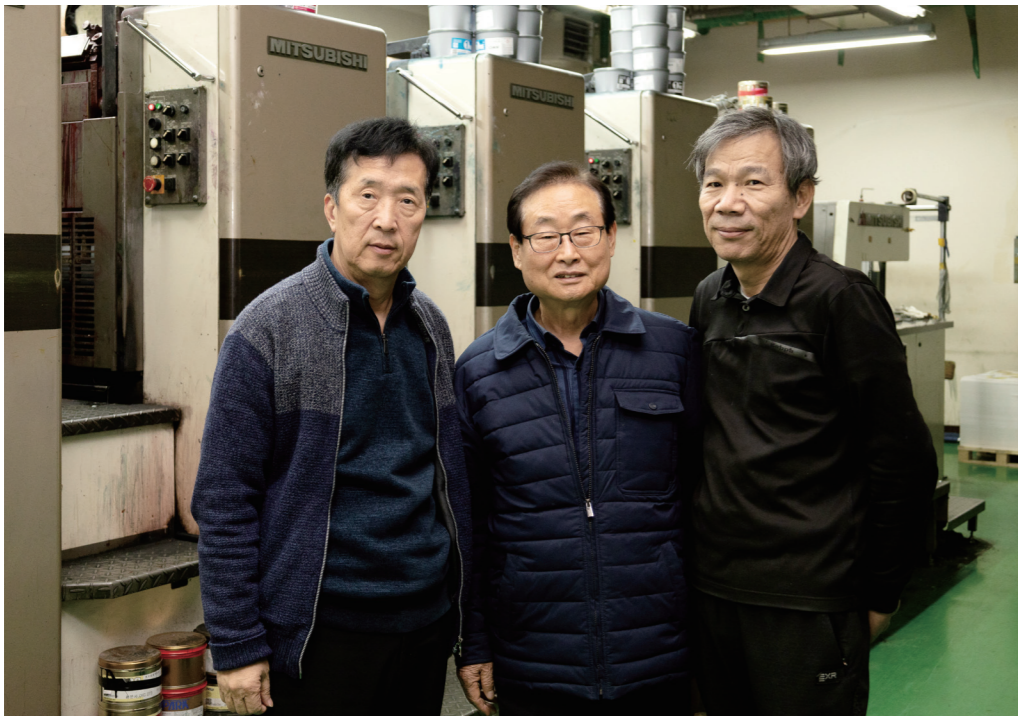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의 전통 중 계승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쇄는 우리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기록하고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어갔으면 합니다. 요즘에는 녹음으로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역시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 문자로 써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오래 가는 기록매체입니다.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합과 화합입니다.

우리 인쇄업계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문화협회도 우리 인쇄인의 것이고 연합회도 우리 인쇄인의 것입니다. 서울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험담하고 탓하기 전에 필요하면 단체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인쇄조합에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중소기업중앙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체협약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조합 건물도 큰 재산인데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문사 임원들과 함께



서울시가 선정한 인쇄분야 우수숙련 기술인 3인



서울시는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 지난해 12월 2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 숙련인은 △인쇄 △주얼리 △수제화 △의류봉제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시인 자로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인증서 현판을 수여하고 개발장려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쇄분야에서는 김석현 일진기획인쇄 대표, 민관홍 경성문화사 대표, 이계수 대화 유.씨.피 공장장 등 3명이 인쇄분야 우수숙련 기술인으로 선정되었다(본지 2023년 12월호 11쪽 참조).

이에 2024년에는 우리 인쇄분야에 더 많은 우수숙련기술인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인쇄를 빛낸 인물 3인을 만나봤다.

“25년간 우수한 인쇄 육성 발전”

● 김석현 일진기획인쇄 대표

25년간 인쇄업계에 종사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 발전시켜 2000년부터 장기 근속한 직원이 인쇄업계에 진출하도록 뒷받침하여 주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패키지 관련 개발로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는 가업승계를 통해 인쇄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시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소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선보이겠습니다.

일진기획인쇄는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한 장의 인쇄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정신으로 모든 임직원이 가족처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하게 납품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업승계를 통한 인쇄의 자부심과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시설을 최신식으로 갖춰 시대 흐름에 맞게 더 품질 좋은 생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종업원도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노사관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 민관홍 경성문화사 대표

경성문화사를 지난 2010년 제책 및 인쇄관련 품목 제조업 사업으로 법인전환했으며 노령근로자와 발달장애 근로자, 다국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업계 내 인재 양성과 기술 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앞으로 계획 등 한 말씀 바랍니다.

주변에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추천을 해주셔서 서울시 우수숙련인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46년 오로지 인쇄제본업계에만 몸담아 온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해준 일종의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경성문화사는 이윤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곳에서도 하기 힘들어하고 까다로운 중철, 무선철, 양장제품도 처리할 수 있으며 기획에서 인쇄, 제본에 이르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오래 보관될 책을 만드는데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쇄기를 포함해 무선철, 양장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딸아들이 가업을 승계하고 있어 앞으로는 공장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더 좋은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김정전 대화유.씨.피 대표(좌측)와 이계수 공장장(우측)

“표준 라벨 개발로 수출 진출”

● 이계수 대화유.씨.피 공장장

이계수 공장장은 대화유.씨.피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티커 이중라벨지와 3중 라벨지 개발의 선구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한 기술을 통해 제약, 화장품 분야의 표준라벨에 팔목할만한 개발을 이끌어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길을 열게 했다.

축하드리며 몸담고 계신 곳의 주요 업무 소개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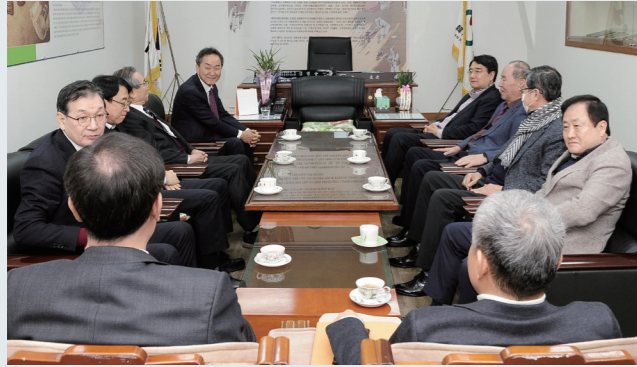
서울시에서 우수숙련인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것과 또한 인쇄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화 유.씨.피는 1977년 창립한 이래 지난 47년 동안 스티커 라벨 분야의 개척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티커 라벨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김정전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 품질개선,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 창립 50주년을 향해 모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전 회장님의 추천을 통해 과분한 표창을 받게 되어 감사하며 이번에 우수숙련인으로 선정된 만큼 몸담고 있는 회사와 업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인쇄 4단체장, 신년하례식 개최

원로단체장들과 인쇄 업계 현안 논의



신년하례식을 겸한 인쇄 4단체장 회의가 지난 1월 19일(금) 고수곤 연합회 전회장, 김남수·조정석·원종철 문화협회 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 김윤중 이사장은 “서울인쇄조합은 올해도 인

쇄인들의 생존권이 결부된 세운재정비축진사업과 인쇄기준요금 정착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수 문화협회장은 “인쇄진흥재단은 인쇄시설 현대화 지원, 친환경 및 품질인증 사업, 외국인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2025년부터는 문화체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명실상부한 인쇄진흥재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박래수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쇄기준요금 정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4월 이후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인쇄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영수 기술협회장은 “우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하나 된 목소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개최

김윤중 이사장, 서울인쇄조합 공동장비 지원 및 세운지구 인쇄업체 대책 요청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과 서울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윤중 이사장은 애로사항 건의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제도 활성화 △서울인쇄센터 공동장비 지원 △세운재정비축진변경

계획 관련 인쇄업체 대책을 요청했다.

먼저 중소기업 공동구매제도 활성화에서 공공기관에서 인쇄물 발주 시에 품질 보증 제품을 지명 제한·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동상표인 ‘HI-PRINTING’ 제품을 적극 활용해줄 것과 서울인쇄센터의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으로 작동불능상태인 장비 도입을 우선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세운재정비축진변경계획 관련 인쇄업체의 대책으로 세운지구 공원·녹지 조성 시 문화상업시설로 조성할 계획인 지하공간을 중구소재 인쇄업체에 공공임대상가로 확대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운지구 착공 전 중구 인쇄산업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인쇄 이주단지 및 공공임대상가와 관련해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일부 부지에 공공임대상가를 건립할 계획이며 인쇄업체도 이주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공급량 847호 중 인쇄업 대상은 220여호 배정되어 있다”면서 “향후 사업 시행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인쇄조합, 간사장·운영위원회·사업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세운지구 대책 등 업계 현안과 조합 운영 비전과 전략 계획 논의



간사장 회의 모습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서울인쇄조합의 간사장 회의(1월 8일), 3분과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회의(1월 15일), 3분과위원장 및 사업·재정분과위원회 회의(1월 26일)가 각각 개최되었다.

먼저 간사장 회의에서는 세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3분과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회의와 사업·재정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 조합 운영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김윤중 이사장은 “지난해 세운재정비축진계획과 인쇄기준요금 정착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 및 서울인쇄센터를 조합에서 운영하게 된 것은 큰 성과였다”며 “장애인기업 인쇄물 구매 편중 문제는 중소기업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건의, 관철해 나갈 것이며 기능인력양성 교육은 서울인쇄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운재정비축진



사업·재정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위원회를 주축으로 생존권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 하며 조합 캘린더 제작은 수익 창출의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캘린더 시장의 활성화 목적과 조합 홍보의 목적이 더 크므로 내년에는 9월 이전에 시제품을 완료해 조합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인쇄조합 제30대 신임 상무이사 선임



김병수 신임 상무이사

서울인쇄조합은 지난 2월 8일자로 김병수 신임상무를 선임했다. 김병수 신임상무는 1986년 제30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래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과장 △정보통신부 SW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정책과장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강원·전남·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 3년간 조합의 행정을 이끌어갈 김 상무는 “조합원과 인쇄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공직 경험을 살려 조합의 어려운 현안 해소와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FSC 인증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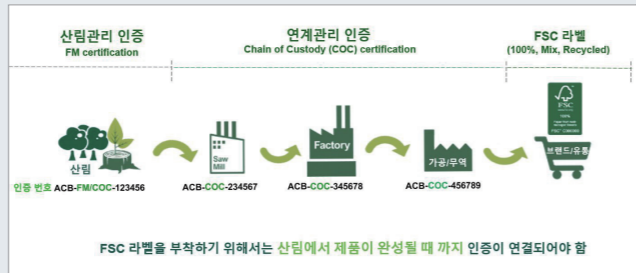
조합원사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서울인쇄조합은 FSC코리아와 공동으로 서울인쇄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FSC 인증 설명회를 지난 1월 24일(수) 오후 3시에 서울인쇄센터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FSC코리아 권성욱 대표가 FSC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노남훈 산림인증 심사원이 FSC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2부에서는 개별상담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권성욱 대표는 “FSC(산림관리협회)는 전 세계 숲을 책임지게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 NGO 단체이자 1994년 지구촌의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관리를 통해 수확된 임산물을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 인증받은 회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 이유는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ESG적인 이미지를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며 더불어 FSC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인증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노남훈 심사원은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산림인증제도에는 FSC, PEFC, KMCC, sfi가 있지만 FSC 인증이 압도적이며 비영리단체에서 조직화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인증 사용방법은 상표를 다운받아서 계속 쓸 수 있지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비 책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유통사인지 가공업체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한편, 서울인쇄조합은 지속적인 FSC 설명회의 개최와 함께 조합원사에 되도록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 활용 안내

디지털인쇄기, 분광측색기, 촬영스튜디오, 회의실 무료

예약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3F) 디지털 콘텐츠 제작실
[오르빗뷰 장비 촬영 예시] <https://www.orbitvu-korea.co.kr/gallery.html>

5F) 기술창작실
문의 : 02-6417-3711, 3713, 3716 E-mail : smih-icr@naver.com

6F) 협업 아틀리에
회의 및 세미나, 바이어 상담, 컨설팅 등을 위한 공간 대여 ※ 회의실 이용시간 ※ 회의실 사용가능 대여 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3시간입니다 ※ 최초 사용 시 1. 네이버 예약 후 기...

3~6F)원형전시공간
브랜드 전시/팝업, 신제품 소개/이슈 및 네트워킹 등 원형전시공간

서울인쇄조합은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등 서울시 소재 3대 도시 제조업 소공인의 기술 고도화 및 기술 부가가치화를 위해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쇄관련 보유장비는 엽손의 디지털 인쇄기 2대, 대형프린터, 전사기와 함께 스캔용 분광측색기가 있으며 6층 협업아틀리에를 통해 최대 20명까지 교육 및 회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3층 디지털 콘텐츠 제작실과 5층 촬영 스튜디오를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전액 무료이다.

예약방법은 네이버 '서울도시제조허브'를 검색, 예약버튼을 클릭해 5층 관련 장비나 6층 협업아틀리에를 클릭 사용자 선택 후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9
서울도시제조허브 5층, 6층
문의 : 02-6417-3711



예약 바로 가기

제22대 총선 비례대표홍보물 공정한 입찰 발주 요청

국회의원 선거공보물 인쇄배송업체 모집 공고문 보내와

서울인쇄조합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22대 정당비례대표 홍보물 제작 발주는 중앙당에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인쇄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는 공정한 입찰 발주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 비례대표홍보물 인쇄제작과 관련하여 발주를 기획사 한 곳에서 진행해온 바 많은 인쇄업체가 공정한 입찰의 기회도 없이 심대한 경영난에 봉착해왔다. 따라서 인쇄시설을 구축, 생산하고 있는 인쇄회사와 직접 발주계약을 함으로써 인쇄소공인들의 기업경영상황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비례대표홍보물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운전인쇄기계 회사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상태로 여기에 기획사를 통해 하청제작을 하면 기획사 폭리로 인하여 인쇄회사는 겨우 인건비 정도만 받고 주야로 인쇄작업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인쇄품질 및 납기준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4일 연합회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보물 인쇄배송업체 모집 공고문을 보내오음에 따라 기획사 단



국민의힘 홈페이지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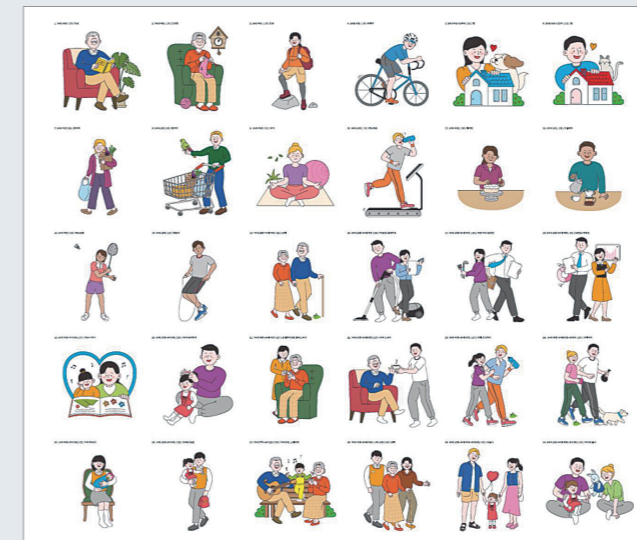
독업체 수의계약이 아닌 인쇄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는 공정한 입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가족 이미지 무료 배포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 이미지(50종)를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웹홍보물 디자인 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상을 담은 이미지



들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AI, PNG 파일을 제공하며 공공누리 사이트(www.kogtl.or.kr)에서 '다양한 가족'을 검색하면 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의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번 다양한 가족 이미지 무료 배포는 한 국건강가정진흥원이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웹 홍보물에 대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편견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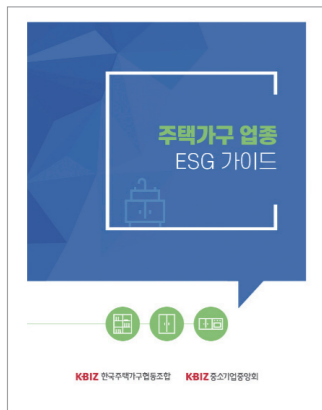
- 활용 방법 : 웹 홍보물 디자인 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상을 담은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활용(AI, PNG 파일 제공)
- 활용링크 : www.kogtl.or.kr(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가족' 검색)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사항
(주)늘품플러스	중구 퇴계로 243, 평광빌딩 10서울시 층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5, 211호	주소

중소기업 ESG 공급망 대응 온라인 무료교육 제공

중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및 사례집도 무료 다운로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ESG 교육 툴킷들



ESG 공급망 대응 온라인 동영상 시청 및 자료집 다운로드로 책상 앞에서 무료교육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은 지난 1월 15일(월)부터 중소기업의 ESG경영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해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온라인 무료교육 심화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본 교육은 2021년 11월 중기중앙회가 개설한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온라인 무료교육의 후속·심화 과정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ESG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공급망 실사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ESG경영 실무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은 △기후변화와 ESG 공시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중소기업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등 총 8차시로 구성했다.

● 본 과정은 2023년 7월 중기중앙회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체결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ESG홈페이지(esp.kbiz.or.kr)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ESG홈페이지에서 중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및 ESG 사례집을 비롯해 다양한 중소기업 ESG 경영 툴킷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공급망 ESG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인식,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ESG 개념 이해부터 실천, 정보공개에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실천 및 보고사례, 각종 템플릿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안내 기업승계 지원세제 요건 충족 여부 등 무료 상담지원

작년 기업승계 세법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선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완화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편 내용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확대	(현행) 60억원 이하 10%, 초과 20% → (개정) 120억원 이하 10% 초과 20%
	연부연납 기간확대	(현행) 5년 → (개정) 15년
기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업종변경 제한완화	(현행)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개정)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돕기 위해 기업승계 지원 세제 및 승계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기업승계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20여 명 자문위원 위촉
-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기업상속공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www.k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별 맞춤 상담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하길 바란다.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사업 개요		
지원대상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자문기간	1월~12월(예산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중앙회 누리집(www.kbiz.or.kr)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상담방법	전화, 온라인, 현장방문	
주요내용	기업승계 세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액계산, 주식가치평가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박화선 실장(☎02-2124-3145)

we create
the future



drupa 2024는
어디서?!

8년만에 개최되는 drupa 2024

남강항공과 함께 가시죠!



drupa 참관 안내문 보고 신청하기!

- 가족친화 우수기업
- MAIN Biz
- 경영혁신명 중소기업
- km3 ISO 9001
- km3 ISO 14001
- kidp
- 한국디자인진흥원
- 조달청
- FSC
- KOCCA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창작디자인연구소
- 2019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가격 인상전 마지막 기회

인쇄산업대상 프로모션 기간

2024년 2월 29일 까지



프로모션
최저가 공급



전문 엔지니어
기술지원



저작권
공문상담



3년 약정
할인가 공급



라이선스
관리 및 할당

2024년 3월 Adobe 금액이 인상됩니다.

인상 전 3년간 고정된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프로모션 품목 1

Adobe CCT Complete(모든 앱) 1년

20개 이상의 Creative Cloud 모든 앱 이용
Adobe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Acrobat Pro 등의 앱과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1,000,000원 (VAT별도)

프로모션 품목 2

Adobe CCT Single(단일 앱) 1년

원하는 하나의 앱을 선택하여 이용
Adobe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등
하나의 제품을 선택

440,000원 (VAT별도)



맥플러스

- 기존 Adobe.com 온라인 구매 고객의 경우 본 프로모션으로 확인 후 전환 가능합니다.
- 5User 이상 구매시 Fontfolio 11.1(3,200,000원 상당 영구 라이선스 영문폰트 5User)를 증정합니다.
- Adobe 프로모션 구매 문의 : 맥플러스(김성규 대리) | TEL 02-553-2244 (205)
- 인터넷 웹 신청 : www.macplus.co.kr/print2024